

호주, 2007년 2분기 축산업 전망

권 오 복*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는 분기별로 주요 농축산물 전망을 발표한다. 이때 해당 품목의 세계 수급과 교역전망을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호주의 분기 전망은 해당 품목의 최근 세계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쇠고기의 경우 호주는 한-미 FTA 타결과 우리나라가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쇠고기와 낙농제품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2/4분기 전망 내용을 옮긴다.

1.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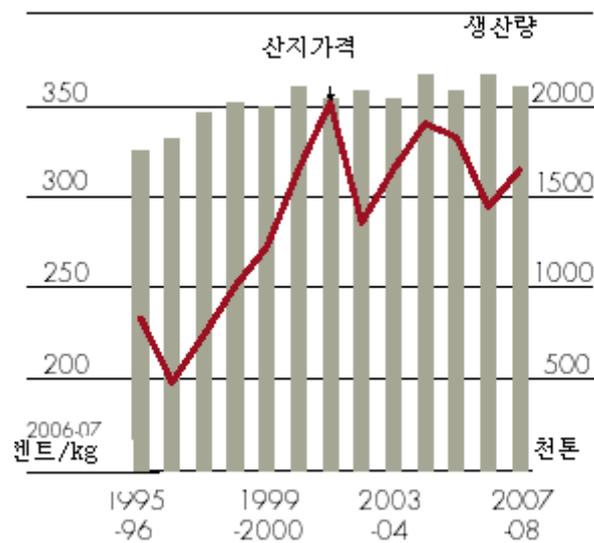
2007~08년 호주 국내 산지 소 가격은 전년대비 10% 높은 kg당 3달러 23센트로 예상된다. 이처럼 산지 소 값이 강세를 Elf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기후조건이 양호함에 따른 입식 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우병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대해 적용하는 수입원칙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007~08년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다소 약세를 떨 전망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적용하던 수입원칙을 바꿔 뼈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호주산 쇠고기 일부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호주의 쇠고기 전망



2007~08년 호주 쇠고기 생산과 수출 감소할 듯

2006~07년 내내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수소와 암소 도축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2007년 1/4분기 암소도축비율은 2005년 3/4분기 41%보다 6%포인트 높은 47%였다.

2007~08년 기후조건이 전년보다 나아진다고 가정할 때 소 사육농가들은 재입식을 목적으로 더 많은 소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2007~08년 소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8% 정도 감소한 830만 두로 전망된다. 쇠고기 생산량도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어 210만 톤 정도로 예상된다.

2008년 6월까지 호주의 소 사육두수는 2800만 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2007년 6월 암소두수가 적어 2007~08년 송아지 수가 줄어들어 사육두수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08년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전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통제국은 OIE 분류상 중간단계로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험이 있지만 질병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명된 국가나, 광우병은 발병되지 않았지만 발병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해 적용된다. OIE에 따르면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미만의 모든 부위의 쇠고기와, 30개월령 이상인 경우 특정 위험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쇠고기는 수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1 호주 쇠고기 전망

	단위	2005-06	2006-07 s	2007-08 f	증감율(%)
가축수	백만두	28.5	27.6	28.0	1.4
소	백만두	25.7	24.9	25.4	2.0
도축두수	천두	8,401	9,013	8,300	-7.9
생산량	천톤	2,077	2,228	2,058	-7.6
수출(선적증량)					
대 미국	천톤	295	306	275	-10.1
대 일본	천톤	388	406	380	-6.4
대 한국	천톤	121	155	110	-29.0
계	천톤	892	979	890	-9.1
수출액	백만호주달러	4,272	4,372	4,374	0.0
생우수출	천두	549	592	640	8.1
가격					
산지가격	호주센트/kg	322	293	323	10.2
미국수입가격	미국센트/kg	276	283	299	5.7
일본수입가격	미국센트/kg	430	477	48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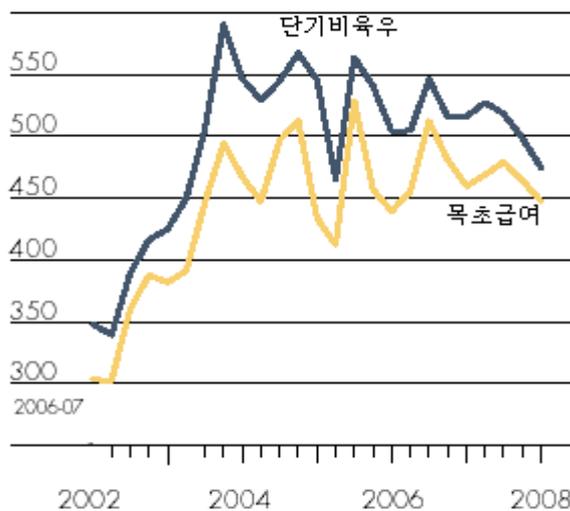
s: ABARE 추정치, f: ABARE 전망치

일본이 쇠고기 수입원칙을 바꿀지 또는 바꾼다면 언제쯤 바꿀지 모르는 상황에서 2007~08년에도 일본의 쇠고기 수입원칙이 그대로 고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미국의 대일본 쇠고기 수출이 단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와 같은 일본의 쇠고기 수입원칙 하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미국 쇠고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산 소 중 5%만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A40 또는 그 이하는 미국 도축 소 중 9%에 불과하다.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전망

2007~08년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는 일본의 엄격한 수입원칙에 따라 미국산과의 경쟁이 계속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강세를 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08년 호주의 대일본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6% 감소한 38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호주 내 산지 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생산비가 상승해서 2007~08년 대일본 쇠고기 수출확대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곡물과 목초 급여 쇠고기의 kg당 2007~08년 가격은 각각 5달러 18센트, 4달러 77센트 등으로 전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그림 2 일본의 대 호주 쇠고기 수입가격



한국과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

2007년 4월초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동 협정에 따라 한국은 이행 첫해에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량이 27만 톤(광우병 발생 이전 수입물량을 20%을 초과하는 수준)을 초과하면 구제조치(safeguard provision)를 발동할 수 있다. 이 같은 발동 물량은 매년 6000톤씩 늘어나 이행 15년차에는 36만 톤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광우병과 관련된 수입원칙 자체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수입정책에 다소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연내에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기타 검역과 관련된 이슈를 협의할 예정에 있다. 한국은 OIE가 최근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8단계에 걸친 안전성 평가 절차를 밟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2005년 한국이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8단계 위험평가를 실시한 사례를 감안할 때 양국 간의 협상에서 위험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게 하기 위해 한국이 현재의 수입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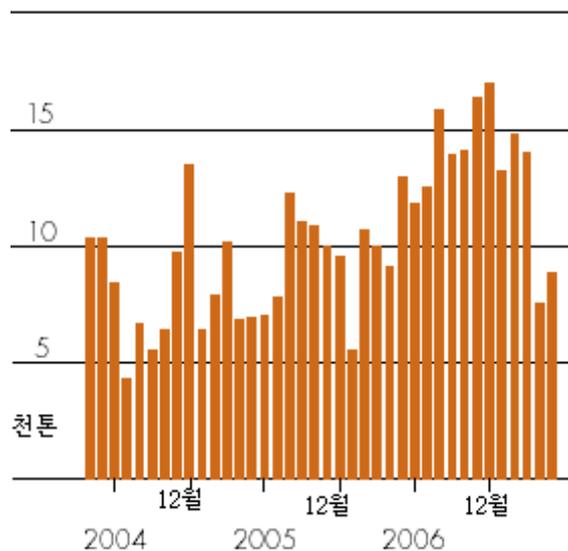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 2007년 하반기부터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대한국 쇠고기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경험에 비추볼 때 뼈를 포함한 쇠고기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의 55%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갈비 형태로 수입되었다.

미국이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특히 갈비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가격이 높아 수출 증가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07년 5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도매가격 기준으로 미국산 안심은 kg당 41000원으로서 호주산 가격 25000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 같은 가격은 kg당 38000원인 한우보다 더 비싼 수준이다.

2007~08년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11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 심화와 호주 내 쇠고기 산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점 등 때문에 2007~08년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호주의 대한국 쇠고기 수출(월별, 2007년 5월까지)



2007~08년 호주의 대미 쇠고기 수출 감소할 듯

2007~08년 미국과 우루과이 양 국에서 가공 쇠고기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도 초에 목초지 사정이 좋아 미국 소 사육농가가 재입식을 늘려 2007~08년 미국의 암소도축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가공용 쇠고기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2007~08년 호주 암소도축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주의 가공용 쇠고기 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7~08년 호주의 대미 쇠고기 수출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27만 5000톤이 그치는 반면 수출가격은 6% 정도 상승해서 kg당 3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우 수출은 증가할 듯

2007~08년 호주의 생우수출은 전년대비 8% 정도 증가한 64만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수출에 적합한 생우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호주 북부에서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후가 계속되어 분만율이 높았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개체수가 늘었다.

인도네시아의 빠른 경제성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호주 생우 수출의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호주산 생우 수입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호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0% 정도 증가한 12만 5000두를 기록하였다.

2007~08년 호주의 전반적인 쇠고기 수출은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약 9% 감소한 89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호주의 전체적인 쇠고기 수출액은 호주 내 산지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 44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낙농제품

2007~08년 호주에서 우유의 농판가격은 전년대비 18% 높은 리터당 38.5센

터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유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우유의 세계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급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의 주요 낙농생산지역에서 가뭄의 영향으로 우유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호주 우유 생산 농가는 우유가격이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급제한으로 세계 낙농제품 교역 영향 받을 듯

세계 낙농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 제한으로 말미암아 낙농제품의 세계 교역이 크게 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낙농제품가격이 계속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07~08년 세계 낙농제품 교역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은 물과 초지의 부족을 가져다 준 호주의 가뭄 효과와, 유럽연합에서 낙농시장 개혁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세계 최대 낙농제품 수출주체인 유럽연합의 2007년 우유 생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낙농제품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세계 낙농제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역내에서 낙농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에서 낙농제품시장 개혁을 목적으로 추진한 낙농제품 지지가격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역내 낙농제품 수요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 공급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대부분의 역내 낙농제품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재고가 바닥나는 가운데 낙농제품에 대한 수출보조를 삭감하면 유럽연합의 낙농제품 수출을 줄어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낙농시장의 판도를 바꿔놓는 또 다른 요인은 유럽연합 내에서 낙농제품 수요구조의 변화이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최근 치즈 소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치즈가 낙농제품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식품 가공과 사료에 단백질 첨가제로서 수요가 여전히 큰 분유와 같은 다른 낙농제품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수출할 수 있는 분

유의 양은 지난 6개월간 계속 감소하였고 2007년에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 않다.

생산쿼터로 인해 낙농제품 생산이 계속해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역내 낙농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당분간 세계 낙농제품 무역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낙농제품 가격의 강세와 젖소 사육두수의 증가로 2007~08년 뉴질랜드의 우유 생산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뉴질랜드 우유 생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지만 뉴질랜드가 세계 낙농제품 가격의 강세에 맞춰 사육규모를 바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우유 생산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낙농제품 수출국으로 새롭게 부상한 아르헨티나의 우유 및 낙농제품 생산은 우유가공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와 사육기술의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주요지역에서 홍수가 심하게 발생해서 우유 생산 증가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 낙농제품 수출을 줄이고 국내소비자에게 저렴한 낙농제품을 공급하려는 정책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낙농제품 수출이 제한을 받아왔다.

세계 낙농제품 가격 더 상승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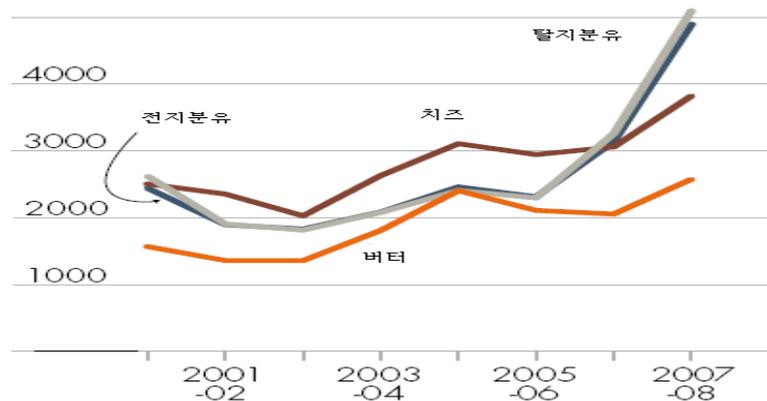
세계 낙농제품 수요 증가가 생산과 수출 증가세를 능가하여 2007~08년 세계 낙농제품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주요 낙농제품 생산국과 수출국의 낙농제품 생산이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해 이미 2007년 상반기 낙농제품 가격이 상당정도로 올랐다.

분유의 세계 생산과 수출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2007~08년 분유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모두 전년대비 60% 정도 상승해 각각 톤당 5100달러(미화 기준)와 49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치

림 분유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유럽연합에서 생산이 감소한 반면 수요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유 수출보조가 줄어들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세계 분유 공급은 뒤쳐져 있는 반면 아시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유아용 분유와 식품가공용 수요가 강세를 띠 전망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동물사료 단백질 첨가제와 식품가공용을 중심으로 분유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08년 치즈 가격은 전년 대비 28% 상승한 톤당 3800달러(미화 기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치즈 소비는 특히 유럽연합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08년 유럽연합의 치즈 생산은 역내 수요와 세계 가격의 강세로 어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치즈생산이 증가해도 대부분 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치즈 소비의 증가와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하에서 치즈 수출보조금의 삭감으로 2007~08년 유럽연합의 치즈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 세계 낙농제품 가격 전망



버터 가격 역시 세계적인 수요증가가 생산 증가를 앞질러 강세를 띠 전망이다. 2007~08년 버터 세계 가격은 톤당 2600달러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에서

버터 재고가 바닥이 나고 버터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유럽연합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세계 낙농제품 전망

	단위	2005-06	2006-07 s	2007-08 f	증감율(%)
젖소 두수	천두	1,870	1,800	1,780	-1.1
우유수량	리터/두	5,397	5,306	5,253	-1.0
생 산					
계	백만리터	10,092	9,550	9,350	-2.1
시장판매	백만리터	2,066	2,150	2,186	1.7
가공용	백만리터	8,026	7,400	7,164	-3.2
버터	천톤	146	130	131	0.8
치즈	천톤	373	360	331	-8.1
전지분유	천톤	158	143	143	0.0
탈지분유	천톤	212	190	198	4.2
우유가격	호주센트/리터	33.1	32.6	38.5	18.1
수출액	백만호주달러	2,570	2,257	2,448	8.5
세계가격					
버터	미국달러/톤	1,998	2,002	2,575	28.6
치즈	미국달러/톤	2,792	2,984	3,825	28.2
탈지분유	미국달러/톤	2,175	3,179	5,100	60.4
전지분유	미국달러/톤	2,192	3,062	4,900	60.0

s: ABARE 추정치, f: ABARE 전망치

2007~08년 호주 낙농생산 감소할 전망

2006~07년 호주의 우유 생산은 주요 우유생산지역에서 극심한 한발로 인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95억 5000만 리터에 달했다.

2006~07년 초기 기후가 따뜻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유 생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지속적인 가뭄으로 관개수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초지 성장이 지장을 받아 사료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사육농가가 사육규모를 줄였다.

금년 4월, 5월, 6월의 강우량으로 인해 사육규모를 줄이려고 했던 농가들은 다소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에는 강우량이 충분치 않다. 이에 따라 목초 가격은 새로운 목초가 나오는 봄까지 계속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2006~07년 한발의 영향을 받은 낙농지역은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지역이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해안지역과 남부지역에서는 기후조건이 좋아 우유 생산이 증가하였다. 2006~07년 남부 호주에서 우유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7~08년 기후조건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유 생산은 주요 낙농생산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낮은 물 분배와 젖소 사육두수의 감소로 2007~08년 호주의 우유 생산은 전년대비 2% 정도 감소한 93억 5천만 리터에 그칠 전망이다.

농가판매가격 큰 폭으로 상승할 듯

2005~06년 리터당 33.1센트에서 2006~07년 32.6센트로 하락한 이후 우유의 농가판매가격은 18% 상승한 38.5 센트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유의 농가판매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 것은 분유와 치즈와 같은 낙농제품의 세계 가격 강세와 가공업자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낙농제품 수출액 2007~08년에는 증가할 듯

2006~07년 호주의 낙농제품 수출액은 수출가능 물량의 부족으로 전년대비 12% 정도 감소한 22억 6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7~08년에는 수출물량 감소를 상쇄할 만큼 수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에 비해 9% 늘어난 24억 5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분유 가격이 강세를 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7~08년 호주 분유 수출액도 전년대비 57% 증가한 8억 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전지분유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3억 4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호주의 버터, 치즈, 카세인 수출액은 수출가격이 강세를 띠에도 불구하고, 물량 감소폭이 커서 전년대비 각각 1%, 12%, 54% 정도 감소한 1억 7천만, 5억 9200만, 46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Sally Fletcher, Caroline Gunning-Trant, Frank Drum and Peter Berry, "Livestock,"
Australian Commodities(Vol. 14, No. 2, June Quarter 2007) 발췌정리